국민응원단 300명 파리 시가지 홍보전

프랑스 교민 속속 합세 유치 열기 고조

朴지사 만난 北대표 "좋은 마무리 기대"

10년동안 준비해 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결전이 임박해 지면서 한국 대표단은 비장한 각오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재철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대표단에 국민응원단과 현지 교민들도 합세해 여수엑스포 홍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이틀 앞둔 25일 (이하 현지 시간) 국민응원단 300여명이 속속 파리 현지에 도착하고 교민들도 합세하는 등 막판 유치 열기가 고조.

전남도 100여명과 여수시 2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응원단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파리 시내 곳곳에서 응원전을 펼쳤으며, 26일 오후 1시부터는 총회장인 '팔레 데 콩그레' 주변에서 응원을 펼칠 계획.

또 응원단은 이들은 BIE(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의 총회 입장시 피켓과 박람회 수기, 플래카드 등을 흔들며 '2012 여수엑스포' 개최 열망을 전할 계획이며 전남도는 10여명의 한복 도우미를 총회장 입구 3곳에 배치해 마지막 홍보를 벌일 예정.

현지 교민들의 호응도 잇따라 장흥 출신으로 파리의 미술학교인 '에꼴 데 보자르'에서 6년째 공부하고 있는 김미진(29·여)씨는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찾았다"며 엑스포 유치를 기원.

○…지난 23일 오후 7시 세계적인 오페라의 전당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BIE대표들을 초청해 열린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지난 19일 130번째 BIE회원국으로 가입한 북한의 BIE대표가 만나 눈길.

박 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무신 주 유네스코 북한대표부 대사와 악수를 하며 "와 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손 대사는 "좋은 마무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

박 지사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모로코의 경우 프랑스·스페인 등 우방의 외교력까지 동원,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낙관은 금물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오현섭 여수시장은 24일 "현재 판세는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수시민과 전남도민, 전국민의 일치된 마음과 염원이 보태진다면 100%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

오 시장은 "최근 유치 활동과정에서 만나본 BIE 대표들에게 지구온난화와 등 인류의 미래문제에 대비하자는 우리의 주제가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오 시장은 "BIE회원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시장 선거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잡았다"며 엑스포 유치를 기원.

○…25일 파리에 속속 집결해 유치활동에 합류한 현대, 삼성, LG, SK 인사들은 각자 현지에서 강점을 가진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을 최후까지 공략한다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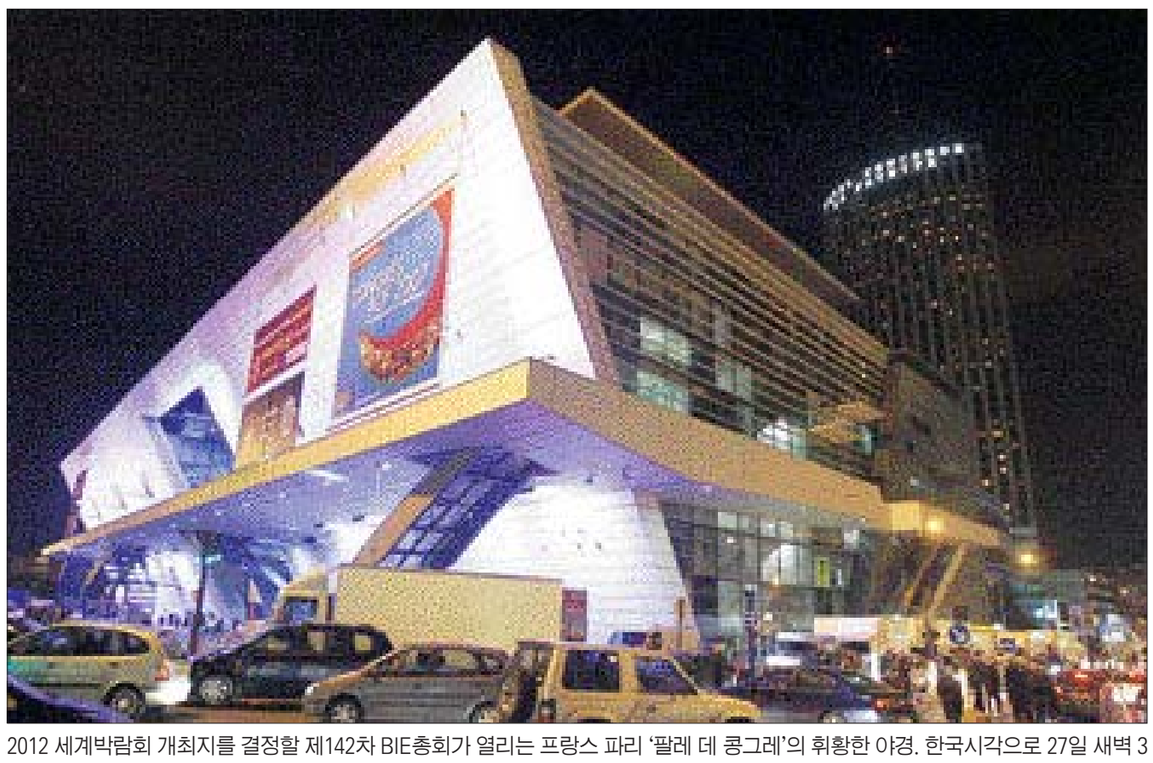
정몽구 명예유치위원장 겸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신헌철 SK에너지 사장, 김종은 LG전자 유럽본부 사장 등은 막판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접촉할 예정.

현대·기아차 그룹의 경우 유럽본부 직원과 지사장 60여 명이 파리에 집결했으며 LG그룹은 2차 투표시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동유럽의 부동표 다지기에 앞장.

○…전남도는 27일 새벽 0시(한국시간)부터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도청사 로비인 윤선도홀에서 여수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과 응원을 펼치며, 유치가 확정되면 야외에서 축포를 터뜨려 도민과 함께 숙원 달성을 축하할 계획.

여수시도 26일 오후 7시부터 27일 새벽 4시까지 시청과 오동도 세계박람회 홍보관 앞에서 철야 응원전을 벌일 계획. 철야 응원전에는 유치 기원 공연과 촛불 밝히기 행사도 마련됐으며 읍·면·동 대항 엑스포 유치 기원 응원 경연대회를 개최해 9팀에게 총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할 예정.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파리=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할 제142차 BIE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의 휘황한 야경. 한국시각으로 27일 새벽 3시께 10년여의 유치전을 펼쳐온 여수박람회 개최 여부가 이 곳에서 판가름 난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 한국 프레젠테이션 뭘 담았나

세계 연안사업 1억달러 지원 재천명

지지 이끌어 낼 '깜짝 선언' 가능성

26일(프랑스 현지 시간) 2012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앞두고 30분간 진행되는 한국 대표단의 프레젠테이션(이하 PT)은 BIE대표들을 상대로 한 마지막 유치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엑스포를 유치하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기존 지지국들의 이탈을 막는 것은 물론 부동표의 표심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 홍보자문위원인 배유정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PT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재철 유치위원장이 직접 나서 '여수세계박람회가 시의적절한 주제 설정과 미래 대안 제시를 통해 인류를 위한 유산을 남길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이 '여수 유치가 결정되면 전세계 해안과 연안 관련 사업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재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BIE회원국의 지지를 단숨에 이끌어 낼 수 있는 깜짝 선언 또는 공약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대표단은 이밖에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의 마술쇼와 전통 부채춤 공연을 준비하는 등 BIE대표단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첨단 3차원 영상기술을 활용한 영화 '미리 가본 여수세계박람회'도 상영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PT가 마지막 유치활동이라는 점을 감안, BIE대표단이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수 박람회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리=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국 阿 지원 약속은 일회성"

모로코 흑색선전…회원국 급증 폴란드 불만

2012년 세계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와 모로코와 폴란드와의 경쟁이 신경전 양상을 띠고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지원 약속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흑색선전을 하는가 하면, 폴란드는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모로코는 최근 자국의 표밭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대사들을 모아 놓고 한국이 아프리카 각국을 상대로 한 경제협력이나 지원 약속은 일회적인 것이니 믿지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탕헤르는 아프리카의 희망"이라며 아프리카·이슬람·개발도상국 최초의 세계엑스포 당위성을 내세워온 모로코는 아시아 위주의 개최지 선정에 문제제기를 하던 수준에서 공세 수위를 높여 노골적인 네거티브 전술을 펴고 있는 것.

모로코는 이 밖에 개최지 결정투표가 이뤄지는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 앞에 위치해 한국 유치단의 숙소이기도 한 메르디앙 에뚜왈 호텔에 '2012년 탕헤르'라고 쓰인 깃발이 설치된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맞은 편의 '2012년 여수' 안내데스크와 소리없는 '전쟁'을 펼치기도 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BIE 가입절차에 대해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브로츠와프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가입국이 지난 두 달간 무려 30여개가 급증, 개최도시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브로츠와프는 지난 6월 개최된 후보지의 공식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가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폴란드가 이같이 BIE 가입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것은 압도적인 표차로 경쟁에서 탈락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게 안팎의 해석이다.

/여수박람회 공동 취재단

■ 3국 막판 유치전략과 판세

한국, 박빙 우세 전망속 국가별 맞춤 득표전

모로코, 우방국 외교력 십분 활용…폴란드, 바웬사 내세워 지지 호소

2012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총회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현지 시간), 한국(여수),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는 서로 승부를 자신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승부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일부 후보국가는 우방 국가의 외교력까지 동원해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회원국 가입 급증 등 각종 돌발 변수에도 불구, 조심스럽게 '박빙의 승리'를 점치면서도 투표 직전까지 방심하지 않고 BIE 회원국을 상대로 개별 득표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표일을 1~2일 앞두고 일부 회원국들이 지지 후보국을 바꾸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원국별로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또 1차 투표로 끝나지 않고 2차 투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 득표전을 벌이고 있는 조중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5일 "나쁜 상황은 아니다"고 총평했다. 조 차관은 "당초 개최후보지 3곳 중 가장 지명도가 떨어졌던 여수는 정부는 물론 재계와 유치위가 합심해 총력외교를 한 결과 비교적 좋은 입장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리는 우리가 지난 500여일간 모로코, 폴란드와 벌였던 접전의 마지막 전쟁터"라며 "경쟁국들이 무슨 수를 낼 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레 수비와 공격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투표이므로 표심을 다지고 또 다져도 언제든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프리카와 이슬람권 최초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전통적인 우방의 외교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는 또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파리에서 본국이 가깝다는 점을 이용, 개최지 결정투표에 맞춰 전세기 2대로 500여 명의 유치단을 파리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왕외교'를 펼쳐 온 모로코는 BIE회원국에 유치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투표 당일 국왕의 사촌이나 동생 등 왕족을 총회장에 파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폴란드는 자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폴란드는 특히 EU(유럽연합) 소속 국가로서 유럽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득표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홍행기기자 redplane@